

## 현상설계경기 competition

### 평택 성결교회

The Holiness Church in Pyungtaek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평택교회는 교회 창립 80주년이 되는 2000년에 교회 역사중 제3성전에 해당하는 기념교회당을 신축하기 위한 현상공모를 실시하여 결과를 발표했다. 설계지침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감각을 조화시킨 교회건물의 구현 및 제시에 있었다. 평택교회측은 절대자를 만나는 공간을 요구했다. 즉 대예배실과 기도실, 성가대실, 세미나실, 공부방뿐 아니라 체육 시설과 전원적인 조경, 그리고 선교의 의지를 담은 조형물을 포함시켜 친밀한 접근으로 쉽나 공원같은 휴식공간으로서의 열린 교회를 현상공모했다. 이번 설계경기의 심사는 민병호(아주대 건축공학과 학과장), 정무웅(단국대 건축공학과), 이차돈(중앙대 건축공학과 학과장), 민창기(평택대학교)와 서관석(성림건축) 씨가 맡았으며, 공모 결과 예조 종합건축사사무소(주영정)안이 당선됐다.

▶ 당선작 / 예조종합건축(주영정)

|       |                          |
|-------|--------------------------|
| 대지위치  | 경기도 평택시비전2동<br>301-27    |
|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
| 대지면적  | 4,628.12㎡<br>(1,400.01평) |
| 건축면적  | 923.91㎡(279.48평)         |
| 연면적   | 3,309.20㎡<br>(1,001.03평) |
| 규모    | 지상 2층, 지하 1층             |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경량 철골<br>트러스    |
| 주요외장  | 지상벽돌, 노출콘크리트, 컬러복층유리     |
| 설계담당  | 강현인, 이주현, 권성욱            |

〈평택성결교회 기념교회당〉 계획안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으로서의 엄숙함과 다가 올 21세기의 열린 교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교회의 위치는 평택시 비전동 일대로 대지 남측으로는 아파트군이 형성되어 있다. 대지는 나대지 형태로 일정한 모양이 아닌 방사선 형태로 대지내 3.5~5m 정도의 절개지를 포함하고 있어 자연지형을 고려한 배치축을 설정하고, 일반교회가 갖는 정방형의 매스를 피해 주변지역으로 개방된 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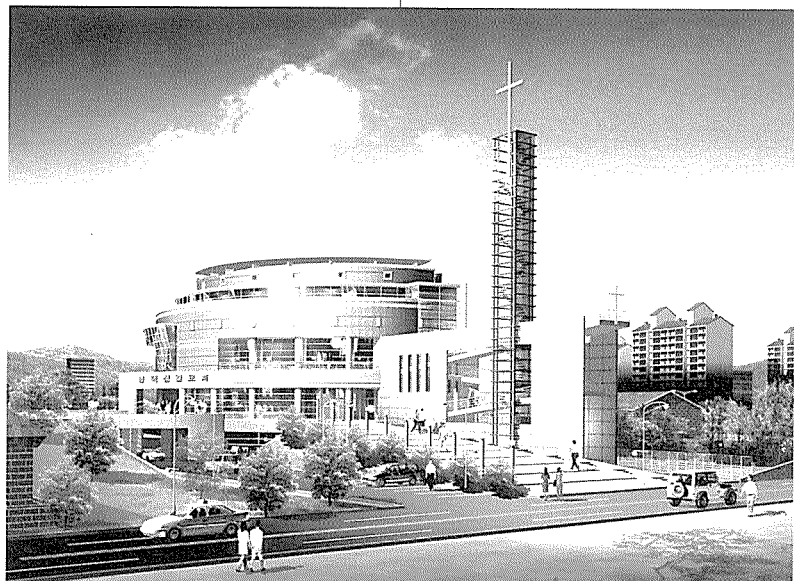
형 매스를 채택했다.

배치계획은 교회가 가지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기능의 명확한 분리와 종교시설로서의 영역성과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주변 환경을 포함한 배치로 계획하고, 지형의 단면 차이를 극복하면서 이를 최대한 이용했다.

외부공간은 신도들의 영적인 교류 및 친교의 공간으로 중앙광장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소망의 광장'과 진입광장으로서의 '믿음의 광장',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야외 예배당인 '사랑의 광장'을 중심으로 계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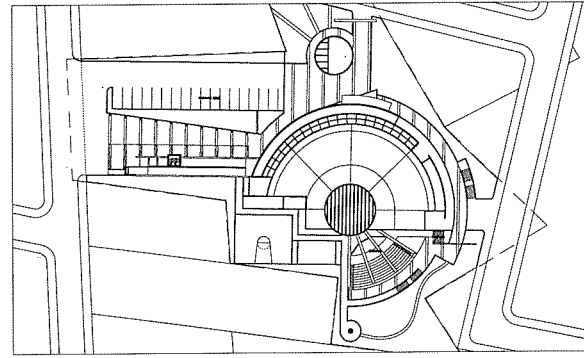
평면계획은 주변으로 개방된 형태인 원통형 매스를 내부로 끌어들이어 이에 따른 각 평면의 기능을 설정하고, 지하 1층은 친교·기도의 공간으로, 지상 1층은 교육·봉사의 공간으로, 지상 2층은 예배의 공간으로 기능을 명확히 분리해 동선의 중첩을 배제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각 실들을 배치하고 토공사량을 최소화했으며, 지하층의 실들은 실제로 외기에 면하여 개방감 및 일조, 환기에 유리하도록 계획했다.

입면계획은 교회로서의 인지가 가능한 입면 및 성장성을 내포하고 주변지역의 랜드마크로서의 장소성과 조형성을 고려해 원초적인 기하학적 도형을 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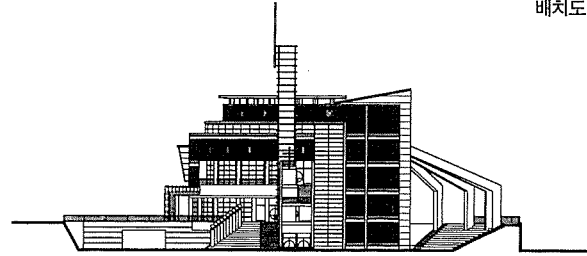


투시도

면구성요소로 삼아 조화와 균형 및 사대를 초월하는 입면으로 구성했다. 자칫 원통형 매스의 단조롭고 육중한 형태를 고려했다. 조적 및 석재의 친근한 재료와 노출콘크리트 및 컬러유리, 알루미늄시트를 사용해 매스와 재료의 대비를 통해 단순성과 변화를 주고, 수평루버를 이용해 수평적인 요소 및 안정감 있는 입면을 구성했다. 또한 주출입구 부분에 노출콘크리트 벽면을 구성해 진입 보행 동선에 따라 경건하고 장중한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했다.



배치도



입면도

##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

### Rest Area of Meeting Plaza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현재 경부선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의 협소한 휴게여건을 개선하고 경부선의 상징이 되는 휴게소를 만들 목적으로 설계경기를 실시, 지난 2월 14일 9개 작품 중 가와건축(안)(최삼영)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여 발표했다. 우수작은 종합건축가람(전태식)의 안이 선정되었다. 이번 심사는 임채진(홍익대), 정광섭(서울산업대), 김용수(중앙대) 교수와 배성준, 조서연, 나경택, 백낙용(도로공사) 씨가 맡았다.

#### ▶ 당선작 / 가와건축(최삼영)

#### ■ 장소

타 휴게소보다 면적이 매우 협소한 경부고속도로의 첫 휴게소다. 오래되어 낡고 사용이 불편한 기존의 휴게소를 철거하고 기존휴게소 뒷편에 새로운 휴게소를 계획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먼길을 떠날 채비도 하고, 여럿이 만나 함께 출발하기도 하는 이곳은 타 고속도로 휴게소와는 의미가 조금 다른 상징적인 곳이다.

#### ■ 기존

기존의 휴게소가 차량과 사람이 잠시 쉬어 가는 공간이라면, 본 계획에서는 만남의 광장이 고속도로 이용자 외에도 주변사람들의 만남을 위한 상징적 공간으로 질 높은 식사와 휴게, 문화의 공간으로 자리 잡히길 의도한다.

휴게소 신축이 완료될 때까지 기존휴게소의 영업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 ■ 건물

건물은 대지의 뒷쪽으로 밀어 주차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며, 두 개의 매스로

나뉘어진 본동과 화장실동 사이로 낮은 산이 배경으로 들어와 좁은 대지를 시각적으로 확장시킨다. 주차공간과 휴게소 사이에 가벽을 세워 커를 형성하여 깊이 있는 접근을 의도했다. 본동 매스와 화장실매스 사이에 대기와 휴식을 위한 OPEN SPACE를 두어 두 매스의 물리적 분리를 기능으로 연결시켰다.

#### ■ 조형계획

주변이 도시란 점이 고려되어 단순한 매스의 도시적 감각의 조형을 의도하였다. 속도와 안전을 입면의 수평성으로 주장하며 뜯지붕은 경쾌한 날개가 되어 두 매스 간을 시각적으로 연결시키기도 하고 휴식공간의 지붕역할도 해 준다. 아간에는 뜯지붕과 기둥에 조명을 비추어 원거리 인지도를 향상시키며 뜯지붕의 유영(流泳)성이 한층 돋보여 신비로운 아간 조형을 연출한다. 휴게소 건물의 화장실은 매우 중요한 기능이며 보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화장실 공간연출을 위해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도입했으며 창을 통해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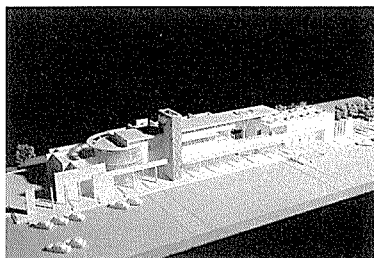
장식만을 위한 화단을 마련했다. 높은 층고와 넓은 창은 유쾌한 화장실 공간을 만든다.

■ 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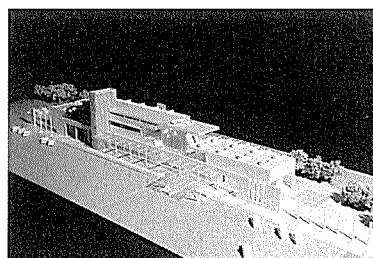
충분한 휴식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친숙한 환경을 제공한다. 분수(WATER SCREEN)를 통해 원경을 조망하며 인지도 높은 조경 계획으로 만남과 휴식의 LAND MARK가 되길 기대한다. 건물후면 도로와 휴게소 사이에 차폐 및 방음 식재를 계획한다.

■ 재료와 색상

본건물 외부 이미지는 신뢰와 안전을 디자인 요소로 적용하여 금속성 신소재인 알루미늄 하니콤(OPEN JOINT)과 투명유리를 수평적으로 사용하였으며, 건물일부와 가벽은 친철, 친밀, 자연스러움이 디자인 요소로 적용되어 목재 사이딩을 사용한다. 전체 이미지는 금속성 은빛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외부 가벽은 자연스럽게 친근한 목재의 컬러와 질감으로 감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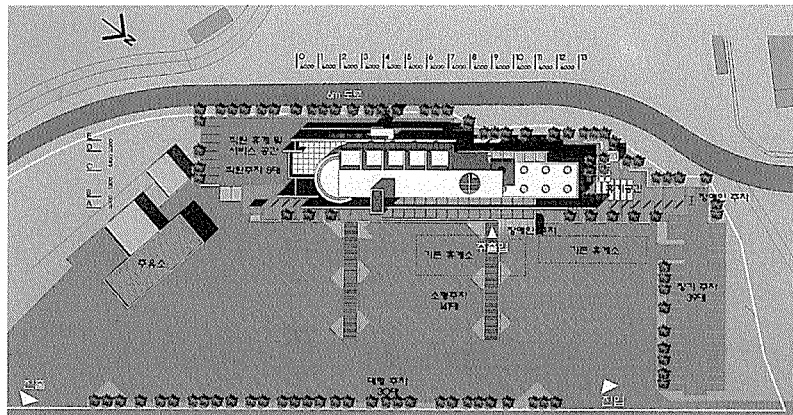
모형사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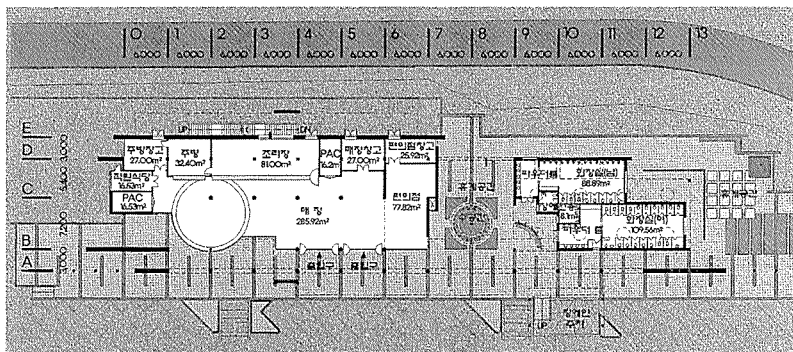
모형사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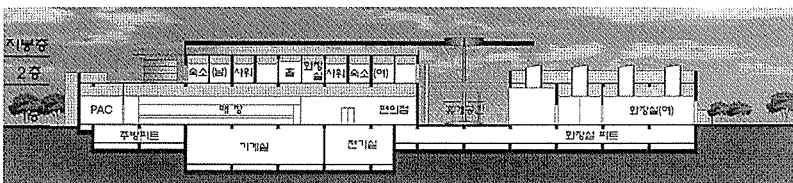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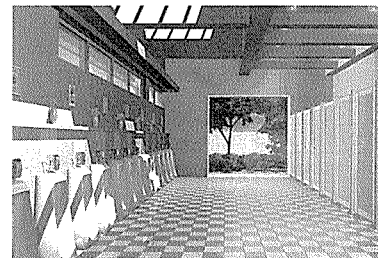
배치도



1층 평면도



횡단면도



화장실 내부투시도  
천창과 대형창호로 환기와 채광의 적극적인 연출  
내부 프라이버시를 위한 장치인 유리블러과 대형창 사이의 조경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실내 분위기 조성



중정과 뜰  
매장과 화장실 사이의 쾌적한 옥외대기 및 휴식공간 제공  
중정 - 전후면을 관통하여 대지의 효율적이용 및 시각적 확장 유도  
뜰 - 아간 / 하부에서 비추어 반사되는 조명으로 신비로운 조형 창출